

현대복식에 나타난 단추 디자인에 관한 연구

양 리 나 · 한 성 지*

배재대학교 의류패션학부

의복이란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의·식·주 중의 하나로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성별, 직업, 신분 등을 나타내주기도 하며 몸을 장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인간은 석기시대 이전부터 자신의 몸을 장식하였으며, 그 수단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장신구가 발달하였는데, 단추도 그러한 장신구 중의 하나이다.

단추는 의복의 일부분이지만 각 시대에 따라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의복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장식성과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단추는 형태, 색상, 재질, 위치, 크기, 문양 등의 조형요소에 따라 여러 가지 독창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일이나 기법, 기술 등이 새로이 모색되고 있어 기능을 중시하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장식적인 목적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복에 있어서 기능성과 장식성이 조화된 단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먼저 기능성, 장식성과 상징적인 측면에서 단추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복식에 나타난 단추를 이용한 디자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추의 기능적인 역할은 단추가 의복을 여미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단추가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중세 이후로 끈이나 장식핀으로 여미던 고대의 드레이퍼리 형태의 의복어상체나 소매부분이 몸에 꼭맞는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끈으로 대신하기 불편한 곳에 사용하기 편리한 단추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단추가 기능적인 면에서 장식적, 상징적인 면으로 그 용도가 전이되어 숙련된 장인들에 의한 고가의 단추가 성행하였지만, 19C에 들어와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합성소재의 개발은 부의 과시나 허영의 상징에서 실용적으로 변모되면서 단추의 장식적인 기능은 약화되었다.

단추의 장식적인 역할은 단추가 의복을 여미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장식을 위한 장신구의 하나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단추와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의복 디자인, 소재, 색상 등을 고려하여 단추의 형태, 색상, 재질, 크기, 위치, 문양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단추는 재료나 형태에 따라 의복 디자인에 영향을 주며, 단추에 사용된 문양 또한 의복 디자인 및 용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50·60년대의 단추는 의복구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단추 한 개를 의도한 특정한 곳에 달든지, 단추를 연이어 달아 단추 고유의 기능인 잠금기능을 포기하고 오히려 장식용 악세서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단추 본래의 역할인 잠금기능을 하지 않는 단추를 줄지어 다는 것은 선적인 것을 강조하는 요소로서 활용되

었다. Lanvin은 다양한 크기의 단추를 사용하여 발목까지 내려오는 망사의상을 장식했고, Givenchy는 스웨터의 어깨솔기에서 봉제선을 따라 넓은 간격으로 두 줄의 단추를 줄지어 달아서 스웨터에 우아함을 더해 주었다. Dior도 반짝거리는 자개단추 두줄을 달아 자신의 의상을 돋보이게 했다. 최근에도 의상에 단추를 줄지어 달아 특별한 효과를 보여주거나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단추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결합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단추의 상징적인 역할은 단추의 기능적, 장식적인 역할 보다는 단추가 내포하는 의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직업, 정치적, 문화적인 면과 같은 문화현상이 반영된다. 사회단체의 지도자, 왕이나 황제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복상징을 사용한다. 복식을 통한 권위, 신분과 부의 상징은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복식의 상징적인 역할은 단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차 대전 중에 Chanel에 의해 새로운 의상 스타일이 개발되었다. 해군 병사의 편안한 유니폼에 착안해서 우아하면서도 단순한 의상을 만들어냈는데 이 의상의 유일한 장식은 금단추였다. 이 금단추는 그 당시에는 간단하게 만들어졌지만 후에 진주, 보석 등을 이용하여 사벨 단추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최근에는 단추에 브랜드의 로고를 넣어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 단추가 달린 옷을 착용함으로써 신분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단추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현대복식에서 단추의 역할은 기능성과 장식성을 모두 요구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옷을 여미는 기능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옷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패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복의 한 요소인 단추는 의복이 배제된 단추 그 자체로서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의복과 조화되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복식의 진정한 미적 가치는 기능성과 장식성의 완전한 조화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식에 있어서 기능성과 장식성이 조화된 단추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현대복식 디자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부분으로 생각된다.